

온정 가득 '천원 한끼' 식당, 노인일자리카까지 더하다

광산구·광산시니어클럽 협업 운영 어르신 10명 참여...연내 추가 개소

광주 광산구가 지역사회 후원 등을 밀거름으로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노인일자리카' 사업을 접목한 '천원 한끼'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에 제1호 '천원한끼' 식당(삼암로 171번길52)을 개소했다. '천원 한끼' 식당은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인기 가득한 점심 한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소한 '천원 한끼' 식당은 광산구와 광산시니어클럽이 협업해 식당을 운영한다. 특히 광산구의 '천원 한끼' 식당 개소 계획을 접한 CN2매리웨딩홀(회장 이천년)이 1억원을 후원하고, 이번 1호점 개소에 힘을 보탰다.

'천원 한끼' 식당의 주 판매 음식은 콩나물 국밥이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단돈 1000원에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일반 시민도 3000원만 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즐길 수 있다.

천원 한끼 식당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하며 판매 수량도 하루 100그릇으로 한정한다. 천원 한끼 식당 운영에는 노인일자리카 참여 어르신 10명이 참여한다.

광산구는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지난 10일 광산구 우산동에 문을 연 '제1호 천원 한끼' 식당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우산동에 '천원 한끼' 식당 1호점을 개소했으며, 올해 내에 취약계층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천원 한끼'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내 곳곳에서 마을공동체 주도로 돌봄 이웃의 식사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기영철, 이하 지사협)와 '가순이네' 식당이 협력해 운영하는 '천원의 사랑 행복한 밥상'을 시작으로, 첨단1동 지사협(위원장 박순애)은 골목상권의 '릴레이(이어가기) 참여' 활동으로 돌봄 이웃에게 1000원 점심을 대접하는 '선한식당'을 선보이고 있다.

첨단2동 지사협(위원장 안병모)은 마을 공유부역을 활용해 직접 만든 짜장 밥상을 돌봄 이웃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1000원의 밥값을 기부받는 '짜장 밥상(진심을 담은 짜장 밥상)' 운영에도 나서고 있다.

송정2동 지사협(위원장 박하규)에서는 지난 7일 지역 식당과 협업해 매일 4회 홀몸 어르신에게 영양 만점 식사를 제공하는 '송2송2 밥상친구' 운영을 시작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과 마을이 주도해 먼저 시작한 '천원 한끼'가 노인일자리카와 연계한 사업으로 진화하고, 광산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밥상 나눔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알리요 투어버스' 광산 매력 따라 한 바퀴

광산구 첫 시범운영, 장록습지~월봉서원~1913송정역시장 체험

광주 광산구가 지역 관광, 여행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를 첫 시범 운영했다.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는 광산구의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마형 투어버스다.



<사진>

지난 11일 첫선을 보인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에는 사전 신청한 36명이 탑승했으며, 대한민국 제1호 도시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록습지부터 송산목장, 월봉서원, 임곡 딸기농가, 1913송정역시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나섰다.

넓은 초원에서 활동하는 양 떼와 말을 볼 수 있는 송산목장에서 "도심을 떠나 멀리 여행 온 듯 하다"며 만족해 했으며, 특히 아이들은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교감하는 시간도 보냈다.

이러 월봉서원에선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항의 만남과 우정, 사상논쟁을 담은 연극 '월봉로맨스'를 관람하고, 임곡동의 친환경 딸기 농가를 찾아 직접 딸기를 따는 체험도 했다.

이날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를 체험한 시민들은 "그동안 몰랐던 광산구의 매력을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며 "버스를 타고 광산구를 여행하는 색다른 경험이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광산구는 지역 내 다양한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코스를 발굴해 올해 6월과 9월, 10월 세 차례 더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 운행 정보 및 이용 방법은 광산구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광산구 '배우랑개' 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투어 코스를 시도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의 정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광산 알리요 투어버스를 중심으로 광산구 관광·여행을 더 즐겁고, 새롭게 할 콘텐츠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만족' ... "전국에 확산됐으면"

올해 21개소→53개소 확대 계획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민간형 휴게 쉼터 운영 등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 노동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커피숍을 이동노동자에 개방하고 언제든지 찾아 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달고나 휴게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달고나'는 '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의 줄임말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에 선정된 광산구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5개 지역 기관·단체·기업과 협력해 추진한 지원사업 중 하나다.

광산구는 민간 커피숍 21개소를 '달고나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지역 택배·배달 노동자 5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참여자에게는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광주은행과 협업해 광주 내 모든 커피숍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생카드를 지원했다.

현장의 만족감도 높았다. 광산구가 지난해 사업참여 1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민간형 휴게 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74%였다. 특



광주시 광산구 벌크커피하남메가박스점에서 지난달 30일 광산구 이동노동자 일터개선사업 '달고나 휴게 쉼터' 운영 확대 기념식이 열렸다.

히 맞춤형 안전교육, 체험형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각각 94%와 95%로 나타나는 등 평균 88%가 광산구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달고나 휴게 쉼터'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창현 라이더유니온 지회장은 "이동노동자들은 4대 보험 문제,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문제 등에 노출돼 있고, 노동환경도 취약하다"면서 "광산구에서 시작한 일터개선 사업이 광주를 물론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산구는 올해 커피숍과 함께 편의점 기능까지 갖춘 민간

형 쉼터를 확대하고, 안전교육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달고나 쉼터는 기존 21개에서 커피숍, 편의점 등 3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53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들과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휴게쉼터 모델이 모범이 돼 우리 사회에 이동노동자가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민생활력 종합대책 마련 '박차'

46개 부서 정책 공유회...공공일자리·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

광주 광산구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해 민생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박병규 광산구청장 주재로 민생활력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 과제 등을 점검했다.

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광산구 46개 전 부서가 다양한 경제주체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현장을 살피며 발굴한 정책을 공유·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광산구는 전체 부서가 소상공인, 시민, 유관단체,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며 함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대화'를 진행했으며, 시민 제안 공모전을 열어 일상에서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 과제, 민생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또 4월 지성회의에서는 '함께 고민해 보는 민생활력 정책'을 주제로 전 직원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공유

회에선 ▲지역밀착형 공공일자리 발굴 및 확산 ▲관급공사 조기 발주 및 선금 지급 확대 ▲지역업체 계약 이행보증 요건 완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활성화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비 진작 ▲민관연대, 협력 ▲취약계층 지원 ▲선제적 재정집행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했다.

이어 각 정책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예산, 실효성 등을 따지며 구성 방안 및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는 이번 공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의 연관성, 재원확보 방안, 중·장기적 대응 전략, 중앙부처 업무 연계 등을 검토해 추진할 정책을 확정하고 민생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복합 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